

역점사업 성공 위한 현장 점검

진안군, 푸드협의회 발대식

무주군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장 방문

무주군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이 27일부터 28일, 다음달 11일 3일 동안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친다.

이번 김 군수 권한대행의 사업장 현장 방문은 무주군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역점사업들로 모두 19개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사업추진과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무주군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이 27일부터 28일, 다음달 11일 3일 동안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친다.

이번 현장 점검은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시설 점검과 관계자들로 부터 사업추진과 발전방향에 대한 청취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첫날인 27일은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비롯해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그리고 아름다운 아간연출을 통해 문화재 품격 향상과 일상적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한풍투 빛거리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공정 및 과정을 꼼꼼하게 살폈다.

28일에는 무주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을 비롯해 태권어드벤처 활성화 사업, 선도산립경영단지 조성 사업장, 신평령(구곡도) 재해복구사업 현장.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을 둘러본다.

이밖에 김 군수 권한대행은 오는 6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진행될 등나문운동장과 덕유산 국립공원 내 덕유산야영대를 찾아 준비 과정도 챙기며, 이어 안성 사전 공동육묘장과 표고버섯 배지센터, 무주 예코빌리지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는다.

현장방문 마지막 날인 다음달 11일에는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머투와인동굴 주차장 조성, 적상 농촌중

심지 활성화 사업, 적상면 작은목욕탕 현장을 끝으로 현장방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은 "무주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역점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요사업장의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장방문을 토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과정과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푸드플랜 관련 정책 발굴·자문 위해 민관 함께 소통

진안군은 27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진안군 푸드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형 푸드플랜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유통, 소비 등을 선순환 체계로 묶어 군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기획생산,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 확대, 환경 보호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종합계획이다.

진안군은 푸드플랜 관련 정책 발굴 및 자문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비상설위원회인 푸드협의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게 된 것.

푸드협의회는 먹거리의 생산, 가공, 소비 등 각 분야별 민간위원 8명과 기관단체 및 행정 위원 8명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진안군 먹거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진안형 푸드플랜 수립의 워킹그룹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원활한 푸드플랜 사업 추

진을 위해 앞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진안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진안군 실정에 맞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비전과 핵심 목표 수립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관련 조례 등 제도기반 구축 ▲실증연구로 기획생산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읍내권 임시직매장 개설 및 운영 컨설팅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조달 시범사업 등이다.

김창열 부군수(진안군수 권한대행)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정 분야별 먹거리 실천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발굴 하기 위해 민관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에 발맞춰 현장수요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해 진안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지역특산물산업 관련 심포지움

진안홍삼연구소(김태영 소장)가 27일 진안 지역 특화작물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진안 지역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진안홍삼연구소와 호서대학교 보건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사)대한발효·식문화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움에는 국내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진안군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진안홍삼연구소 김태영 소장은 "진안홍삼연구소의 연구현황 및 추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구소 주요 연구성과 및 추후 연구계획, 진안군의 품질인증제도, 진안홍삼의 성분 및 우수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 차의과학대학교 박건영 교수는 "김치의 효능과 함암김치"를 주제로 진안 홍삼 및 지역특산물을 김치의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호서대학교 강순아 교수는 진안 홍삼 및 아토피 치유특구로서의 나아가

방향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화 방향과 치유산업 전망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했다.

농수산대학교 이경순 교수는 '로컬 푸드와 우리 식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해외의 로컬푸드 사례로 진안 지역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친환경적인 식생활환경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경희대학교 이경란 교수는 홍삼의 비만 억제, 항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 개선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 진안홍삼연구소 김태영 소장은 "홍삼뿐만 아니라 발효인·홍삼 및 지역특산물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인삼 재배농가와 가공업체에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홍삼연구소는 진안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향상 전략 모색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사랑상품권, ‘장수물페이’로 사용하세요”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토록 지원

장수군은 최근 코로나19로 농특산물 소비패턴이 비대면 온라인 구매로 전환됨에 따라 장수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물'에서도 장수사랑상품권을 장수물페이를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장수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수물을 새로운 유통채널로 인식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군은 현재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지류 장수사랑상품권을 장수물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장수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장수물 페이 전환 외에도 '모바일 장수사랑상품권'을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결제 수단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수물페이 전환을 원하는 신청자는 장수물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해 장수사랑상품권 원본과 함께



농축산유통과 마케팅팀에 제출하면 된다.

장수물은 2015년 9월 민간위탁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2017년 7월부터 장수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9개 업체(농가)가 입점해 한우, 사과, 오미자 등 133개 품목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장수군의 대표 농특산물 소평불인 장수물의 활성화 및 판매 증대를 위해 결제 수단의 다양화 외에도 소비자 중심의 장수물 인터페이스 및 메인 페이지 개편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무주군이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쾌적한 산림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차단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한 산행 등이 줄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해 산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군은 불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팀 직원들과 읍·면 담당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꾸렸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오염행위를 비롯해 산림보호구역내 무단발채, 산림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현장계도도 아울러 실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K farm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정책 홍보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3일 동안 열리는 K farm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무주군 귀농귀촌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K farm 귀농귀촌 박람회는 '농업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스마트한 귀농귀촌 정보습득 방법 및 미래농업, 농업인 정보교류, 농식품 가공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박람회는 도시민들에게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청년들에게는 농촌 취업·창업의 기회를, 농민들에게는 농업의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무주군의 경우 귀농귀촌 상담은 물론 무주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및 집들이 비용지원, 주택수리비지원, 청·장년 영농자재지원,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진안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공시대상은 올해 진안군이 조사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065호 중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8,811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진안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